

墮落天使



사진: 로버트 메이플소프,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자화상》, 1967, 캔버스에 유채, 60 x 60cm, 60 x 60cm

안명과 논란, 찬사와 논쟁, 순수한 열정과 세속적 욕망의 극단을 오간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가 21세기의 서울에 당도했다. 그 삶과 작업은 문계적 예술가가 살아낸 격정의 시대에 대한 자화상이자 어둠의 심연에 탐닉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진술서다.

CONTRIBUTING EDITOR HEJJEONG YOON EDITOR SOHYUN CHO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의 평전 《메이플소프: 에로스 and 타나토스》(음유문화사)의 추천 글을 쓴 인연으로 지난 2019년 북투크에 참여한 적 있다. 꽤 생경한 경향이었는데, 퇴근 후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온 독자들의 호기심치고는 이상하리만치 낯이 있었다. “왜 그가 여전히 각광받는 거죠?” 이는, 이렇게 나쁜 작가가 과연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느냐는 냉랭한 반문처럼 들렸다. 이 평전은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메이플소프의 기묘묘한 인생을 잠재성한 책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중대한 진실, 이를테면 그가 위험한 섹스에 얼마나 깊게 몰입했고, 왜 악마적인 것에 매료되었으며, 약물, 섹스, 파티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삶과 예술을 지배했는지 등이 놀랍도록 소상히 기술되어 있다. 메이플소프의 대변인이 아니었던 나는 그런 그를 충분히 옹호하지 못했다. 다만 깨달은 건 있다. 세상은 예술가들에게 현자의 미덕을 요구하고, 이런 것때는 격정의 시대를 상 문제적 인간, 동시에 제 삶을 태워 예술사에 의미를 각인한 전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 말이다. 완벽하게 나쁘지도, 나쁘지 않지도 않지도 않지도 않는 나 같은 벌인들이 의면하고픈 진실, 예술가들은 예상보다 더 나쁜 데다 특히 메이플소프에게 완벽한 순간은 그가 가장 완벽하게 나섰던 순간임을 인정해야 하는 당혹함에 우리 모두는 압도당했다.

“탐미적인 정물 사진과 색수렴티를 실험한 사진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습과 윤리 의식에서 벗어난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경교한 사진적 양식성을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메이플소프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사진작가다. 솔직하고, 혁신적이며, 순수하다는 찬사와 추종하고, 모멸적이고, 음탕하다는 비난을 어떻게 한 몸에서 받은 작가는 없었다. 그러나 ‘최대의 진사가’ 시대의 현자로 거듭나기에, 삶은 너무 짧았다. 메이플소프는 1989년 3월 42세에 에이즈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으므로, 평생 욕망했던 ‘장생유명한 예술가’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가 고인생을 열 만큼 살았다 한들, 예컨대 분노한 사티르스처럼 무대를 초토화시키던 혁명적 핑크록 뮤지션에서 백발의 은화 한 원자로 변신한 그의 소울메이트이자 인물루이자 페티 스미스는 달리, “도를 넘는 행위의 길을 가다 보면 지혜의 궁전에 다다른다”는 블레이크의 명언은 오류로 증명했을 게 분명하다. 메이플소프는 오로지 자신의 말을 극한의 미학과 극적인 삶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진에 뛰어든 건 오늘날을 살아가는 존재가 품은 평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완벽하고 현대적인 매체였기 때문이에요.”

《뉴욕 타임스》는 지난 10월, 시대정신을 반영한 미국의 현대미술가 25인을 선정했다. 지위 예술(Protost Art)이라 명명한 리스트는 레온 골립,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오노 요코, 비바다 크루즈, 야기니스 테니스 등 불세출의 작가들과 함께 메이플소프를 언급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100만큼 후퇴한 상황에서 화망의 전부를 다지며 급조한 기묘한 섹스, “예술의 은밀한 기능, 즉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고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집단적 능력, 을 만개할 하는 역할을 숙고할 가치가 있다. 이들이 평가받아 ‘기괴하고 성폭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고자 한’ 메이플소프는 현대사진을 포함한 예

술의 영토를 확장한 주인공이다. ‘절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섹스와 육체를 다룬 그는 “포르노그래피를 예술로 끌어올렸다”. 그의 등장 전까지 퀴어 서브컬처, 사도마조히즘, 흑인 누드 등은 예술이 접근 가능한 주제인 데다, ‘참여 관찰자’로서 자기 삶의 가장 내밀한 지점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담아낸 자는 없었다. 메이플소프는 종종 “나는 카메라다”라 말했는데, 그에게 카메라는 대부분처럼 주제와 피사체를 분리하는 관음의 도구가 아니라 현실과의 연결 혹은 유대의 상징, 관습을 깨부수고자 열망한 그 자신이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가장 충격적인 사진을 찍도록 했으며, 정지의사하러곤 백지였던 그가 훗날 ‘지위 예술’의 주역으로 꼽힐 이유다.

만약 메이플소프가 지위를 했다면 첫 대상은 자기 정체성이었는지? 다. 예술에 몸 바친 (유명하고 부유한) 순교자를 향한 상대한 욕망은 그의 고향, 지붕 색깔마저 천관일물적인 중산층 마을인 뉴욕 맨스 클로빌 파크는 어울리지 않았다. 공포경계 그의 아버지는 말뚝배기 평범한 삶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낀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였다. 그의 정체성 혼란 혹은 짐작은 신의 아들임을 포기했지만 엄격한 아버지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욕망에서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괴상부터 실패를 거듭했고, 급기야 그는 주류 사회를 기웃대는 ‘아웃사이드’가, 시대정신을 역세리처럼 걸친 ‘히피’였다. 사도마조히즘 클럽의 섹스 중독자였다. 문화 사회계의 공작수가 되는 등 자신의 욕망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를 급이화 시킨다. 그런 그에게 ‘동성애자 사진작가’라는 정체성은 두려움과 곤란인 아버지에게 맞서는 공격의 방편이었다. 이어진 나쁜 건 그런 그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가족이 알게 될까 봐 평생 전전긍긍했다는 사실이다.

메이플소프에게 섹스는 살아야 할 이유를 신사한 유일한 구원의 행위였다. 그의 성 탐구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게이 잡지를 훑쳐보거나 조악한 사진을 클라우징던 그가 후에는 현대판 ‘오동과 고모’라 스텝이오. 54나 마인사프트 같은 클럽에서 만난 ‘미친놈들’을 카메라 앞으로 끌어들이며 무아지경을 경험하는 ‘사’였다. 평전의 저자 페트리샤 모리스로는 이렇게 쓴다. “그의 성적 정체성은 죄책감과 장벽에 대한 두려움과 심하게 뒤얽혀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과 ‘단연’의 관계를 맺을 때 사티르스 역할을 함으로써 지은 자를 처벌하는 사도 때 무고로 뒤를 서 있었다.” 그 ‘평범한 처사’와 항문에 채찍을 맞은 채 카메라를 노려보는 절정의 눈빛에서는 스스로를 잊은 자의 비장하고 초월적인 쾌감이 느껴진다. 낯설고 놀라운, 충격과 비난을 양산한 사진을 통해 세상에 공표하려 한, 에로스(사랑)의 신과 타나토스(죽음)의 신과 예술과 포르노처럼 뒤얽힌 자기 삶에 대한 찬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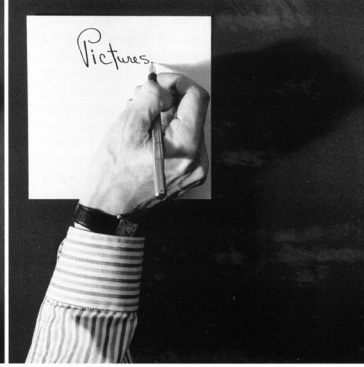
성적 일탈과 창조적 에너지, 사랑과 작업이 따르던 메이플소프는 의미 있는 관계를 모두 사진 기록으로 남겼다. 열인, 부부, 누이, 친구 그리고 모든 관계의 결정적이었던 메리 스티븐스 비롯, 그를 작가의 영역으로 이끈 ‘가녀리’ 아이치지 사진 예술 컬렉션의 선구자 샘 그레스트, 바지 지퍼 사이로 (메이플소프가 완벽하다 평한) 검은 남근이 빠져 나온 모습을 포착한 회제작 ‘올라에스테르’ 장상을 입은 남자(1980)의 주인공 밀턴 무

[exhibition] 108

미르겐 토크의 영웅 로버트엔 영웅스. 불꽃이불 연상시키는 자화상. Silver Portrait, 1980. Silver Gelatin, 50. 8x40. 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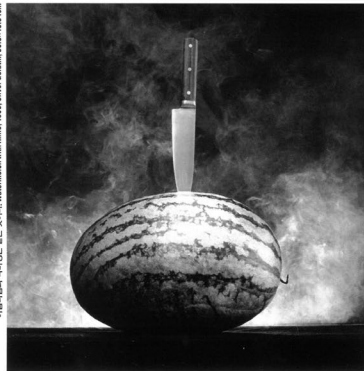


21세기 최고의 미인대회 우승 자화상. 소녀자 화상. Bodybuilder Lisa Lynn, 1981. Silver Gelatin, 50. 8x40. 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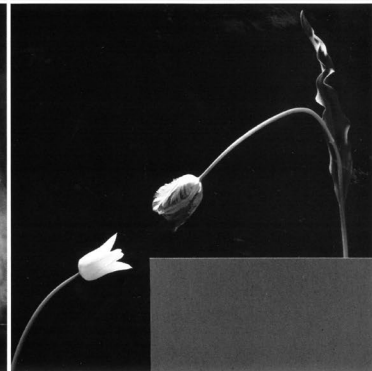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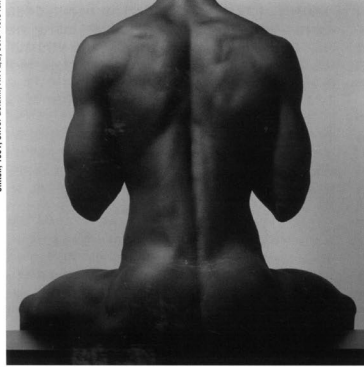


미르겐 토크의 영웅 로버트엔 영웅스. 불꽃이불 연상시키는 자화상. Silver Portrait, 1980. Silver Gelatin, 50. 8x40. 64cm

이탈리아의 미인대회 우승 자화상. Watermelon with Knife, 1985. Silver Gelatin, 50. 8x40. 64cm



미르겐 토크의 영웅 로버트엔 영웅스. 불꽃이불 연상시키는 자화상. Silver Portrait, 1980. Silver Gelatin, 50. 8x40. 64cm



꽃도 사랑의 언어. Two Tulips, 1984. Silver Gelatin, 50. 8x40. 64cm



41. 세련된 미인대회 우승 자화상. 자화상. 소녀자 화상. Bodybuilder Diana Bonomi, 1980. Silver Gelatin, 50. 8x40. 64cm

exhibition 110

어, 초현실적인 여성 육체의 소유자였던 보디빌더 리사 라이언, 그리고 절나
의 사랑과 자기 육체를 카메라에 담은 수많은 남자들... 그러나 저화상에서
보듯, 그가 아무리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했다 한들 스스로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없었다. 메이플소프의 자아도취는 천하제일이었다. 세상이 자
신을 천사의 날개 위로 꼭 떨어질 사람 혹은 땅에서 솟아난 특별한 사람으
로 여겨주길 갈망하는 나르시시스트였다.

다큐멘터리 《에이플소프》(2010)와 평전 《에이플소프》(2019)는 선지적
사진가의 기구한 삶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가 위한 모습의 상황, 부모화가 초
대한 마법적 행에 주목한다. 특히 인생을 기록하는 역사의 풍경은 1977
년 한날 열린 두 개의 전사에서 전개했다. 대안 공간 '기진'에는 예로부터
못해 낯선 사람이, 상업적인 '올리 솔로몬' 갤러리에는 양철한 꽃과 초상 사
건의 걸렸다. 두 장의 갈고리 다른 초상상에 실린 상반된 사진 제목은 공히
'저화상'이었는데, 두 모습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작가의 인상이었다. 실제 그
는 양쪽 세계에서 공히 화제가 되었다. 예술과 금기, 관습과 무의식의 경계
에 선 그의 별난 존재감은 뉴욕에서 일종의 현상으로 부상했고, 너도나도
'위대한 난봉꾼의 모델'을 자처했다. 워홀 패카리에 끼고 싶었던 유약한 은놈
이 '10년 사이에 등장한 최고의 초상 사진 작가'라 평가받으며 워홀이 제 발
로 찾아오게 만든 것이다. 무일푼 예술가부터 예술로 한몫 쟁긴 윌스트리트
금융인까지, 배우, 정치인, 귀족, 미학자, 포르노 딜러까지, 절대 마주칠 일
없는 부류들이 그의 로프트를 번갈아 들락거렸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남편
조각상을 연구하러 긴 채 보좌하게 왔었고, 이기 짧은 동공을 한껏 열고는 필
사적인 표정을 짓었으며, 리처드 기어는 웃통 벗은 미소년이 됐는데, 그들의
제스처는 메이플소프식 실험의 공포자라도 된 듯 관대하다.

메이플소프는 얼굴 몇 달린 아누스였다. 낮에는 꽃을, 밤에는 섹스와
육체를, 다음 날에는 초상을 찍었다. 조각을 대하듯 육체를 썼고, 섹스를 대
하듯 꽃을 다뤘으며, 패턴 사진이랍시고 스웨터를 뒤집어쓴 모델의 얼굴에
친착했다. 사도모조처럼 사진으로는 더 유명해질 수 없어서 유명인들의 초
상과 꽃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은 대단한 비밀도 아닐뿐더러 문제 되지도 않
았다. 중요한 건 메이플소프가 탁한 핏빛 사도미노히즘 세계와 화려하게 반
짝이는 피타갈, 양극을 자유롭게 오간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것. 이런 이중
성이 그의 카메라 앞에선만큼은 모두를 발동하게 만드는 민주적으로 발현
됐다는 사실이다. 고저층은 사진을 받아 들고 기뻐했다. 그는 제 안의 시야
함과 우아함, 순진함과 비열함, 선함과 악함, 초연함과 분란함 등의 미덕을
적체복소에 개씩 쓸 줄 알았다. 특유의 불균질성이 피사체를 해석하는 신선
한 시선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전혀 기대하지 못한 모습, 즉
자기 본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전 손택은 자신의 책 《강조해야 할 것》에
서 이렇게 썼다. "그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나를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과
는 다르게 나를 격려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자유를 준다."

물론 그를 유명하게 만든 분방한 삶은 동시에 많은 것을 가리기도 했다.
당대 주목할 만한 작가들이 모이는 미술 행사 카셀 도큐멘타에 참여했다던
가, 폴리에스테르 장갑을 입은 남자가 소머리 역사상 최고작으로 꼽힌다면

가미터 버리노가 그의 릴렉타다. 라프 시몬스가 그를 오버주하는 컬렉션을
꾸렀다면가, 장경 1년 동안 구겐하임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면가 하는
사실 종종 비판까지도 그의 삶에 도사리는 역사의 긴장감을 사진에 대입한
다면, 디오니소스(황홀경의 신)와 아폴로(지혜의 신)가 협업해 만들어낸 빛
과 그림자, 그 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이나 성취 행위의 부양상을
잡아낸 사진은 지극한 탐미주의이자 형식주의자의 고집을 드러낸다. 울
고 그들을 남어서는 미화에 대한 집착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으며 대립과
공존의 각을 세운다. 그의 사진은 클래식한 동시에 섹스하다. 낭만한 동시
에 드급다. 본능적인 동시에 우아하다. 여성적인 동시에 남성적이다. 성서
로운 동시에 섹스적이다. 솔직한 동시에 극묘적이다. 고급한 동시에 저급하다.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불멸하다. 메이플소프가 포착한 깊고 짙은 쾌락, 그가
보고, 겪고, 살아낸 세상이 우리에게 인기 혼란만큼 절묘하다.

이론 나이에 세상을 뜬 그를 두고 '맛있는 인생'이라 혀를 찰지만, 꼭 그
런 것만도 아니다. 메이플소프의 예의 작업을 국내에서 감상할 최초의 자리
(Robert Mapplethorpe: More Life(3월 28일까지)가 국제갤러리에 마련
된다. 출간작가 추상 혹은 비탄받은 그의 작품은 종종 시대착오적이라는
혐의도 받는다. 그의 사진이 더 이상 파격적이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 이는
가죽 재킷 입은 시위대가 미술관 파사드에 그의 작품을 투사하며 '예술에 자
유를 달라고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변신이다. 그의 죽음
직후 워싱턴 코트엔 미술관이 회고전 '완벽한 순간'을 취소하고 미국예술
재단과 연방의회는 '외설'에 예술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예술
감찰에 관한 뜨거운 논란이 미국 전역을 덮었다. 이상현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을 빼앗기기도 한 듯, 전세계 정황들 그들에게 메이플소프만큼 영웅적
인 단단의 예술과 자유의 수호자는 없었다. 그의 시대착오적 면모는 절대적
이었던 자유가 상대적으로 변모한, 한발 더 나아가고 한 발 더 멀리 헤쳐
온 현 세계에 대한 역설이나 다름없다.

예술가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그가 풍미한 시대를 증명한다. 메이플소프
가 동성애자로서, 사진작가로서 분부한 시기 역시 성과 예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격변한 때와 궤를 같이한다. 비주류였던 사진은 고유의 가치를 획득
하며 예술 영토에 이점령을 세우기 시작했다. 동성애자들은 정체성을 의
외로 결정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운명을 달고, 열린 성 의식은 여성
운동 등을 통해 타자와 손잡았다. 급진적으로 불온한 무방비도시, 무소불위의
파라다이스였던 뉴욕은 아들을 잃고 죽어갔다. 그러므로 메이플소프
의 사진은 슬픈 논리와 혐의를 넘어, 그 시대와 그 도시의 연대기다. 슬한 데
카당들이 나쁘고도 아름다운 편파성을 품었 실현치던 시대의 저화상이자
지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해방의 도시를 담은 초상. 메이플소프의 존재를
골로 한 시대가 저물었고, 그는 아이본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사진
은 아방가르드한 인생을 통해 지배질했던 '거칠거칠한 매혹적인 것'에 대한 찬
사가 되어, 미중유의 시기를 사는 우리가 앞선 문명적 사대를 마주하는 일
기막힌 순간을 지속한다. 이것이 어떤 진리의 부재가 'More Photography'
혹은 'More Art'가 아니라 'More Life(보다 나은 삶)인 이유다.



메이플소프의 'Self Portrait, 1981. Silver Gelatin, 50.8x40.6cm